

燕行錄을 통해 본 高麗 지식인들의 對中國 遊藝觀 고찰*

— 李承休의 《賓王錄》, 鄭夢周의 《赴南詩》, 李崇仁의 《奉使錄》,
權近의 《奉使錄》 중 演戲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

이 현 정**

<目次>

| | |
|------------------|--------------------|
| I. 서론 | 2. 個人 차원의 非公式 演戲 |
| II. 演戲의 종류 | III. 觀戲 태도 및 인식 정도 |
| 1. 使行團 차원의 公式 演戲 | IV. 결론 |

I. 서론

연행록(燕行錄)¹⁾에 관심을 가지며 시작된 연구는 시문학(詩文學)에 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133).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1) 燕行錄은 조선시대에 淸으로의 使行 기록을 칭하는 용어로, 당시 수도인 燕京(北京)으로 使行을 갔던 데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이와 구분하여 淸으로의 사행 기록은 朝天錄, 元으로의 사행 기록은 賓王錄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 역시 사행 기록의 명칭에 대한 구분을 주지하고 있으나,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행 기록물들이 元~明初에 걸쳐 있다는 점, 사행 기록에 대한 대명사로 연행록이라는 용어가 통용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4종의 사행 기록물을 연행록이라고 통칭하였다. 김미경은 연행록이라는 용어가 연구자들에 의해 신축성 있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원대와 명대의 사행 기록에 대한 명칭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예우하는 느낌이 있어 연행록이 가장 객관적인 용어라고 평가하였다. (김미경, <19세기 연행록에 나타

타난 중국(中國) 체험, 사행(使行) 기록을 통해 본 한중(韓中) 국제관계 분석, 중국의 소설(小說)·희곡(戲曲) 양상 추적 등 다양하고도 방대하다. 특히 국문학계와 중문학계의 연구자들이 주목한 연행록에 보이는 다양한 연희(演戲)의 연행 양상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²⁾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구 대상이 대부분 18~19세기 연행록의 연희 기사(記事)에 집중되어 있어³⁾ 이보다 앞선 시기의 사행 기록에 나타난 중국 연희 관련 기록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

난 민속연희 - 《薊山紀程》을 中心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6호, 2004, 133쪽.)

- 2) 조선시대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의 연희 관련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미경, 〈19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민속연희 - 《薊山紀程》을 中心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6호, 2004. / 김민호, 〈18세기 燕行錄에 보이는 小說·戲曲 목록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48집, 2016. / 박수진, 〈19세기 연행기사에 나타난 연희 양상 - 〈무자서행록〉과 〈병인연행기〉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42집, 2017. / 안상복, 〈燕行錄의 雜技 관련 記事 연구〉, 《중국문학》 제53집, 2007. / 윤광봉, 〈사행문학에 나타난 연희양상 - 병인연행기를 중심으로〉, 《人文科學論文集》 제23집, 1997. / 이창숙, 〈연행록(燕行錄)의 中國戲曲史料의 價値 探索〉, 《중국문학》 제33집, 2000. / 이창숙, 〈연행록(燕行錄)에 실린 중국 연희(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제20권, 2010. / 이홍식, 〈북경 유리창의 공연예술 - 18~19세기 연행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23집, 2011. / 임기중, 〈燕行錄의 幻戲記〉, 《한국민속학》 제31집, 1999. / 임기중, 〈연행록의 연희기와 관희시〉, 《문학한글》 제13집, 1999. / 임준철, 〈연행록에 나타난 幻術認識의 변화와 박지원의 「幻戲記」〉, 《민족문화연구》 제53호, 2010. / 임준철, 〈18세기 이후 燕行錄 幻術記錄의 형성배경과 특성 - 洪大容·朴趾源·金景善의 幻術記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7호, 2011. / 임준철, 〈박지원 「幻戲記」의 幻術考證과 분석〉, 《민족문화연구》 제57호, 2012.)
- 3) 이 시기의 연행록에는 演戲記, 觀戲詩를 비롯하여 연희 관련 기록에 있어 대규모화, 전문화, 전형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燕行者는 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중국의 연희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였으며, 매우 세세한 장편의 기록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마치 그곳에서 직접 연희를 관람하고 있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하였다. (임기중, 〈연행록의 연희기와 관희시〉, 《문학한글》 제13집, 1999, 30-34쪽.) 연행자의 일기 형식이던 연희 관련 기록들은 이후 朴趾源의 《幻戲記》, 金景善의 《幻術記》 등과 같이 독립 주제로 따로 묶어 창작되기도 하였다. (이창숙, 〈燕行錄에 실린 중국 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제20권, 2010, 134쪽.)

였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高麗)시대의 연행록은 조선시대의 연행록에 비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은 데다 연회에 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거나 매우 소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도 사행단(使行團)이 경사(京師)에 이르면 환영회를 필두로 한 공식 연회(宴會)를 비롯해 수행원들과의 비공식 회동까지 상당수의 연회가 진행되었고, 연회에서는 술과 음식의 접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연회 연행이 곁들여졌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고려시대 연행록에 보이는 연회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고, 사신(使臣)들이 중국 사행에서 보고 들었던 공식(公式), 비공식(非公式) 석상에서의 연회 양상을 추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당시 중국 공연예술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함은 물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를 접한 당시 고려 지식인들의 대중국(對中國) 유희(遊戱) 관념과 문화(文化) 인식 수준까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분류 가능한 연행록은 이승휴(李承休)의 《빈왕록(賓王錄)》, 정몽주(鄭夢周)의 《부남시(赴南詩)》, 정도전(鄭道傳)의 《봉사잡록(奉使雜錄)》⁴⁾과 《중봉사록(重奉使錄)》⁵⁾, 이승인(李崇仁)의 《봉사록(奉使錄)》⁶⁾, 권근(權近)의 《봉사록(奉使錄)》⁷⁾ 등이 있다.⁸⁾ 6종의 내

-
- 4) 정도전이 1384년(우왕 10) 7월, 典校副승으로 聖節使 鄭夢周의 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가서 承襲과 諡號를 청하며 쓴 詩文 모음이 《奉使雜錄》이다.
 - 5) 정도전이 1390년(공양왕 2) 政堂文學이 되어 명나라에 가서 聖節을 하례하고, 이성계가 명나라를 침범한다는 무고를 밝히며 詩文으로 쓴 기록이다.
 - 6) 이승인은 1386년과 1388년 총 2번의 사행을 다녀와 《봉사록》을 남겼다. 기록은 《陶隱集》 1~3권에 산재되어 있는데, 권1에 3수씩 두 군데, 권2에 두 군데로 나누어 각각 13수와 8수, 권3에 20수가 실려 있다. 이러한 편차는 詩體에 따른 것으로 이승인의 《봉사록》은 사실상 《도은집》의 편찬 과정에서 해체, 분산 기재됨으로써 현재로서는 정확한 실체를 알 수가 없으며, 편차 역시 명확하지 않다. (김철웅, 〈李崇仁의 明 使行과 「奉使錄」〉, 《한국인물사연구》 제20호, 2013, 191-194쪽.)
 - 7) 권근은 총 두 번 중국에 사행을 갔는데, 첫 번째는 1389년(공양왕 1) 사행이고, 두 번째는 조선조 개국 후 1396년(태조 5) 사행이다. 《봉사록》은 1389년의 사행 기록이다.

용을 모두 살펴본 결과, 사행 노정에서 연회를 관람했거나 이에 관한 소회
가 포함된 여행록은 이승휴의 《빈왕록》, 정몽주의 《부남시》, 이승인의
《봉사록》, 권근의 《봉사록》 정도로 확인되었다. 《빈왕록》은 이승휴
가 1273년 원(元)나라로 사행을 다녀온 기록이다. 《동안거사행록(動安居
士行錄)》 권4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되어 전하는 여행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다.⁹⁾ 《부남시》는 《포은선생문집(圃隱先生文集)》
권1의 봉사시(奉使詩) 모음으로 1386년 정몽주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남
경(南京)에 다녀온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승인의 《봉사록》은 1386년 하
정사(賀正使)로 1차 사행, 1388년 하절사(賀節使)로 2차 사행, 총 2번의
사행을 다녀와 남긴 기록으로 《도은선생시집(陶隱先生詩集)》 권1~권3에
산재되어 실려 있다. 《봉사록》은 권근이 1389년 북경(北京)을 지나 남경
(南京)에 들러 고려로 돌아오는 여정을 적은 사행 기록으로 《양촌선생문
집(陽村先生文集)》 권6에 전한다.¹⁰⁾

이상의 여행록 4종이 속한 사행시기는 1273년 원나라로의 사행을 필두
로 명(明) 태조(太祖) 홍무(洪武) 1년(1368)부터 고려의 마지막 해인 홍무
25년(1392) 사이에 해당한다. 남아 전하는 고려시대의 유일한 사행 기록이
자, 고려조와 조선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행 기록이라는 점에서 상
기 여행록들의 연구 가치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¹¹⁾ 실제로 이 시기 한중

8) 이상은 임기중의 《여행록 연구》 중 한국과 일본 소장 여행록의 연행 연대순
배열을 참고하였다. (임기중, 《여행록 연구》, 서울: 일지사, 2002, 31쪽.)

9) 《빈왕록》에는 사행의 여정, 목적 및 대도(大都)의 풍정에 대한 관찰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또한 이승휴가 사행을 떠났던 1273년은 원종(元宗) 14년, 지
원(至元) 10년으로 고려와 원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되는 시기였기 때
문에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윤은
숙, 〈大元 使行을 통해 본 李承休의 현실 인식〉, 《인문과학연구》 제36집,
2013, 289쪽.)

10) 따로 저본을 표기하지 않은 본고의 여행록 기사 관련 원문은 모두 임기중 編,
《燕行錄全集 1》(서울: 동국대학교 출판사, 2001.)을 따른 것이며, 번역은 한
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1) 하정승, 〈양촌 권근 시를 통해 본 고려 후기 중국 사행(使行)의 일 단면: 「봉사
록(奉使錄)」의 시를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25권, 2020, 175-177쪽.

의 교류 횟수는 총 194회로, 통계적으로 한 해 평균 8회 가량의 왕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의 연평균 사행 빈도 2.23회를 훨씬 뛰어넘는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사행 인원 또한 총 129명으로 고려시대 전체 사행 인원인 1,126명의 1/10에 달하고 있어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사행을 통틀어서도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²⁾

필자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연행록 4종에서 발견한 연회 관련 기록들을 크게 공식 일정에서 접한 궁정(宮廷)의 정재(呈才), 백희(百戲) 공연 및 지방의 가무악(歌舞樂), 지방희(地方戲) 공연에서부터 사적 일정에서 접한 음악 감상, 세시풍속(歲時風俗) 체험, 양주(楊州) 경유시의 뱃놀이 풍경 등 몇 가지 층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일정의 공식 여부에 따라 접하게 되는 연회의 규모와 종류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연회 향유 태도를 통하여 중국의 공연예술에 대한 고려 지식인들의 유희관(遊藝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II. 演戲의 종류

1. 使行團 차원의 公式 演戲

(1) 궁정(宮廷)의 정재(呈才) 및 백희(百戲)

공식적인 행사로서 궁중(宮中) 연향(宴享) 시의 연회 관련 기록은 이승휴의 《빈왕록》에서부터 확인된다. 4종의 연행록 가운데 《빈왕록》은 경사(京師)에서의 조회 의례와 연회 상황 속 연회 장면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가장 상세하다.

12) 엄경흠, 〈鄭夢周와 權近의 使行詩에 表現된 國際關係〉,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 2004, 181쪽.

지원 10년인 1273년, 원나라에서 황후와 황태자를 책립하고 포고하자, 고려의 원종은 순안후(順安侯) 종(宗)을 하진사(賀進使)로 삼아 사행단을 파견하였다. 당시 이승휴는 서장관(書狀官)의 신분으로 동행하였으며, 사행을 다녀온 후, 1280년 파직되어 고향에 돌아가 있을 때 당시의 시(詩), 표(表), 일기(日記) 등을 엮어 《빈왕록》을 펴냈다.

윤 6월 9일 사행을 출발하여 8월 4일 연경(燕京)에 도착한 일행은 8월 9일 먼저 황후(皇后)를 알현하고, 8월 24일 개평부(開平府) 순수(巡守)를 마치고 돌아온 황제(皇帝)를 알현하였다. 8월 27일 장조전(長朝殿)에서의 낙성식(落成式) 장면에는 대왕에서 백관(百官), 다양한 사절단의 배치와 예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비단을 둘러 치장을 한 산대(山臺)에서 정재(呈才)를 펼치는 기악(伎樂) 공연에 관한 기록은 당시 궁정의 공연예술 양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황태자가 일어서서 헌수를 하는데 당상과 당하에서는 생황과 종을 간간이 연주하고, 비단으로 만든 鰲山에서 기악들이 앞 다투어 呈才를 하니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장엄하고도 경건하였다. 앞열에서는 여섯 대왕이 차례대로 헌수하였다. 신시 초에 파하였는데 부모들의 말하기를 “병란 이후 이 같은 예수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하였다. 아, 나는 지금에야 얻어 보았다.

皇太子起獻壽，而堂上堂下，笙鏞間奏。鰲山繡岳，伎樂爭呈，舞者歌者純如繹如，而師師焉濟濟焉，前行六大王相次獻壽，申初而罷，其父老云，自兵亂已來，未有是禮。噫今得覩。

그리고 다음 날 이승휴는 전날의 연회 관람에 대하여 “상계에서 고품으로 피리를 연주하고 …… 양부의 기악들 흔들흔들 춤추며 정재를 행했네(古風咽笙笛於上界 …… 兩部蹠蹠而呈伎).”라고 표문을 올렸다. 8월 28일 거행된 황제의 성절(聖節) 역시 장조전에서의 예수(禮數)와 같았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¹³⁾ 궁정에서 사행단은 대규모 악기 반주에 맞춘 대단위 무

13) 이 달 28일은 바로 황제의 성절이다. 또 황제가 장조전에서 축하를 받는데,

용수들의 정재와 백희(百戲) 잡기(雜技) 공연을 여러 차례 관람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⁴⁾

9월 2일 이승휴 일행은 중서성(中書省)에 들어갔다가 단사관(斷事官), 대학사(大學士), 선사(宣使) 등의 주최로 열린 주연(酒宴)에서 일주일 새 세 번째 백희 연회를 접하였다.

바로 잔치를 준비해서 위로해주는데 양부의 재인들이 온갖 연기를 다 펼쳐 보임에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석 잔을 돌린 뒤에 상을 치우고 새로운 음식을 내어왔는데 세 번에 이르도록 내어와 날이 저물어서야 파했다.

卽設宴慰之，而兩部才官，百般伎樂，無不爲之。三爵之後，輟案改飮，進者至三，抵暮而罷。

당시 관부(官府)에서 주최한 사행단을 위한 주연에서도 궁정의 양부(兩部) 소속 예인들의 춤과 노래, 잡기로 구성된 백희 공연이 펼쳐졌으며, 갖가지 연회는 술자리가 파할 때까지 오랜 시간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천계사(天界寺)〉

27일에 백관이 이곳에 모여 元日의 조회 의식을 연습하였는데,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하였다. 이는 대개 매년 의례적으로 거행하는 행사이다(二十七日，百官會此習元日朝儀，明日亦如之，蓋年例也).

| | |
|-------|--------------------------|
| 遠客來同日 | 먼 길손이 같은 날에 찾아왔나니 |
| 皇明治定時 | 지금은 황명의 정치가 천하를 안정시킨 때라. |
| 側金開寶利 | 황금을 희사하여 개창한 보배로운 사찰 |
| 立石紀雄辭 | 웅혼한 글을 기록하여 비석을 세웠도다. |

일체의 제도와 예수는 전일과 똑같았다(是月二十有八，是皇帝聖節日也。又御長朝殿受賀，其一切之制與夫禮數，一如前日).

14) 안상복은 송대를 전환점으로 궁정 잡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원대에는 예전만큼 장대한 규모의 연출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聖節이나 주요 節日 또는 외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는 여전히 궁정에서 잡기가 공연되었다고 하였다. (안상복, 《중국의 전통 잡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52쪽.)

| | |
|-------|-----------------|
| 鍾梵清規盛 | 성대하도다 중범의 청규어 |
| 丹青肖像奇 | 기특하도다 단청의 초상이여. |
| 鴛鴦皆會此 | 원란이 모두 여기에 모여 |
| 歲歲習朝儀 | 해마다 조의를 연습한다네. |

이승인의 《봉사록》에 보이는 위의 시에서는 백관이 새해 첫 날 행할 조례 의식을 예행연습 하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시에는 의식 후에 이어진 연회에 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권6》 중 〈새해 아침 조회(元旦朝會)〉 조목을 통해 행사 당일 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는 후속적으로 각국의 사신들에게 연회가 베풀어졌던 상황을 알 수 있다.¹⁵⁾ 1389년의 사행 기록인 권근의 《봉사록》 중에도 남경에 도착하여 황제를 알현 후 예인들의 수준 높은 연회를 관람하며 거하게 취하여 흥겹게 연회를 즐겼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봉천전에서 알현한 뒤에 회동관에서 잔치를 베풀어주다(奉天殿朝見後賜宴于會同館)〉

| | |
|-------|---------------------|
| 中夜金門關 | 한밤중에 금문이 열리더니만 |
| 千官玉珮齊 | 일천 관원 옥패가 가지런하네. |
| 軒墀仙仗集 | 댓돌에는 선장이 다 모여들고 |
| 宮殿瑞雲低 | 궁전에는 서운이 나직하구나. |
| 帝澤淪肌洽 | 황제의 은택 함초롬히 뼈에 젖고 |
| 伶才奪眼迷 | 광대놀음 재주 좋아 눈을 빼앗네. |
| 賜筵那避酒 | 내려주신 잔치에 어찌 술을 마다하리 |

15) 孟元老의 《東京夢華錄·卷之六》 중 〈새해 아침 조회(元旦朝會)〉條에 “……高麗와 남쪽 지역에 위치한 交州의 사신들은 중국의 의식과 똑같았다. …… 고려 사신들은 양문 밖 안주항 동문관에 머물렀다. …… 요나라와 고려 사신들만 그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연회를 베풀었다(……高麗與南番交州使人并如漢儀. ……高麗在梁門外安州巷同文館 ……唯大遼, 高麗, 就館賜宴).”라고 하여 신년하례식 이후 연회가 열린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孟元老 撰, 鄧之誠 注, 《東京夢華錄注》, 北京: 中華書局, 1982, 159-160쪽.)

兀兀醉如泥 흥건히 취하니 이충(泥蟲)과 같네.

궁정에서 행해진 백희 잡기에 관한 목록과 연행 방식은 《진서(晉書)·악지(樂志)》, 《동경몽화록》 등과 같은 전적을 통해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경몽화록·권9》 중에는 남송(南宋)시대 궁정에서 행해진 연향과 연향에서 행해진 연희의 항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재상과 집정, 친왕과 황족, 그리고 백관이 궁궐로 들어와 황제에게 술을 올려 축수를 드리다(宰執親王宗室百官入內上壽)> 조목에서는 송 휘종(徽宗)의 성절인 천녕절(天寧節, 10월 10일) 행사에 고려의 사신들이 동석하여 대규모 주안상을 앞에 놓고 황제가 9번째 잔을 마실 때까지 악기 연주, 춤, 노래, 잡기 등을 관람했던 상황이 명시되어 있다.

(10월) 12일, 재상과 집정, 친왕과 황족, 그리고 백관이 궁궐로 들어와 황제께 축수를 드리는 대기거가 있었다.[홀을 꽃고, 무도의 예를 취하였다.] 백관 이하 모두 황제께 인사를 드리고 좌석에 앉았다. 재상과 집정, 시종관, 친왕, 황족, 관찰사 이상, 그리고 요, 고려, 서하의 사신과 부사들은 전 위에 앉았다. 세 번째 어주. 황제가 술을 마실 때 좌우군의 백희가 입장하여 바로 공연을 하였다. 백희에는 상간(장대 오르기), 도색(줄타기), 도립, 절요(요요기), 농원주(접시돌리기), 척병(차올린 병을 철을 썩은 봉의 끝으로 받아 돌리는 곡예), 근두(공중제비), 경대(물구나무서서 걷기) 같은 것들이 있었고, 사자무, 표무, 대기, 신괴류 공연은 하지 않았다.

十二日, 宰執, 親王, 百官入內上壽大起居[摺笏舞蹈]. 百官以下謝坐訖, 宰執, 禁從, 親王, 宗室, 觀察使已上, 并大遼, 高麗, 夏國使副, 坐於殿上. 第三盞, 左右軍百戲入場, 一時呈拽. 百戲乃上竿, 跳索, 倒立, 折腰, 弄盃注, 踢瓶, 筋斗, 擎戴之類, 卽不用獅豹大旗神鬼也.¹⁶⁾

송원대에는 축수연, 황제의 행차,¹⁷⁾ 각종 신(神)의 탄일(誕日) 등 주요

16) 앞의 책, 219-220쪽.

17) 《東京夢華錄·卷之七》 중 <황제가 입수전에 행차해 수군 훈련을 구경하며

행사마다 장대 오르기, 줄타기, 물구나무서기, 그릇 돌리기, 공중제비 등과 같은 잡기 공연이 연회의 주요 레퍼토리로 공연되었다.¹⁸⁾

사행단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도 역시 연회가 열렸고, 술과 음식의 진상에 가무악(歌舞樂) 공연이 병행되었다.

행렬이 소문의 동쪽 교외로 나오니 영전께서 먼저 나와 작별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렸다. 후학사, 누총관, 강·임 두 선사가 또 진귀한 기물들을 가지고 함께 따라와 장막을 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과 음식은 매우 정갈하고, 노래와 악기 소리가 처량하여 시간이 흐르도록 머물며 작별 인사가 길어졌다. 후군이 사운 장구를 지어주었다.

行出蘇門東郊，令殿先出，開祖席以待之。又侯學士，婁摠管，姜任兩宣使提挈珍具，俱共隨來，并陳供帳。杯盤甚精，歌管悽咽，停駐移時，敘別綢繆。侯君以四韻長句贈行云。

《빈왕록》의 기록으로, 전별연 상황과 이별의 아쉬움이 짙게 드러난다. 당시 연행된 구체적인 연회의 종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의 서술을 통하여 노래와 관악기의 연주가 이루어지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권근의 《봉사록》에도 전별연 모습이 보이는데 연회에서 술과 음식을 즐기며 무희의 춤을 감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십칠일 연부를 떠나려 하자 왕이 섭 봉사(葉奉嗣)에게 명하여 전과 같

연회를 베풀다(駕幸臨水殿觀爭標錫宴) 條에서는 네 척의 배 위에서는 大旗、獅豹、棹刀、蠻牌、神鬼、雜劇 등과 같은 공연이 연출되며 다른 두 척의 배 위에는 대규모 악단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水傀儡, 장대 오르기, 水鞦韆과 같은 雜技 공연도 펼쳐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책, 184-185쪽.) 또 같은 권 〈황제가 보진루에 오르자 諸軍이 百戲를 펼친다(駕登寶津樓諸軍呈百戲) 條에서도 황제가 보진루에 오르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다 사자와 표범 탈을 쓴 사람이 나와 여러 동작을 하고, 장대 오르기, 공중제비, 폭죽놀이, 舞判, 병어리 雜劇 등을 펼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앞의 책, 193-194쪽.)

18) 안상복, 《중국의 전통 잡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48-60쪽.

이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머물게 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다(十七日, 將辭燕府, 王命葉奉嗣饋食如前, 令留賜宴.)

| | |
|-------|------------------------|
| 公館開華宴 | 공관에서 화려한 잔치 베푸니 |
| 親王慰遠人 | 친왕이 먼 데 사람 위로하누나. |
| 泛尊醪既旨 | 잔에 넘실대는 술 맛도 좋으려니와 |
| 凸案味皆珍 | 상 위에 산을 쌓은 찬도 모두 진미로세. |
| 剪帛簪花重 | 깃을 잘라 만든 잡화 목지도 한데 |
| 裁羅舞袖新 | 비단 소매 춤가락은 솜씨 새롭네. |
| 仁恩醺到骨 | 베풀어 사무치는 훈훈한 은혜 |
| 大醉發天真 | 크게 취해 천진을 다 털어 놓네. |

(2) 지방(地方)의 가무(歌舞) 및 연극(演劇)

사행단을 위한 연회는 사행 노정 중에 들르게 되는 지방의 아문(衙門)에서도 개최되었다. 정몽주의 《부남시》 중 〈용산역(龍山驛)〉 시에는 “누대에 올라 행색을 보고는, 북을 치며 나와서 손님을 맞네(登樓望行色, 撾鼓出迎賓).”라고 하여 용산에 도착한 사신 맞이 행사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권근의 《봉사록》 중 〈감수참을 지나며 백호 왕례가 주연을 베풀어 주다(過蚶水站, 有百戶王禮設酒)〉에서도 “술자리를 열어 격의 없이 함께 즐기네(設酒便同歡).”라고 기록함으로써 사신들이 들르는 고을마다 지방관들이 사행단을 마중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주연을 베풀어준 상황을 보여주었다.

〈영평위 난하역에 당도하자 지휘가 와서 초청하여 위사청에서 잔치를 베풀다(到永平衛灤河驛, 指揮來請, 至衛司廳設宴.)〉

| | |
|-------|------------------------|
| 盛代提封遠 | 태평성대라 제후의 봉지는 아득하고 |
| 高城設險堅 | 높은 성 험지에 세우니 견고하기도 하네. |
| 市塵連郭外 | 저자거리는 성곽 밖에 잇닿아 있고 |
| 牆屋接河邊 | 민가는 강변에 인접해 있네. |

| | |
|-------|----------------------|
| 婉轉歌姬舞 | 노래하는 기녀의 춤사위 아취 있고 |
| 雍容地主賢 | 온화한 용모의 성주님 어질기도 하지. |
| 邇遐同一體 | 멀건 가깝건 모두가 한 몸이니 |
| 聖德大如天 | 성덕의 위대함 하늘과 같아라. |

역시 권근의 《봉사록》에 기록된 시로, 지방관 주축의 연회에서 연행된 연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녀(妓女)가 노래를 하며 춤을 추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이날은 기녀들의 가무 공연이 주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몽주의 《부남시》 중에는 내주(萊州)의 해신묘(海神廟)에 들렀을 때, <왕괴가 계영을 저버리다(王魁負桂英)>는 중국 연극(演劇)을 관람했던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3월 중순경, 남경으로의 사행을 시작한 정몽주 일행은 산둥(山東) 등주(登州), 황현(黃縣) 용산역, 황산역(黃山驛), 제교역(諸橋驛)을 지나 3월 말 즈음 내주를 지나게 되었다.

<내주의 해신묘(萊州海神廟)>

| | |
|---------|--------------------------|
| 海神遺廟壓滄茫 | 해신의 옛 사당 창해에 가라앉아 |
| 天子時修爲降香 | 천자께서 수시로 중수하고 향불을 내리셨다지. |
| 自是聖朝崇祀典 | 성조에서는 당연히 제전을 숭상하니 |
| 王魁往事也荒唐 | 왕괴의 옛일 또한 황당하구나. |

마지막 구절에 언급된 ‘왕괴 고사’는 송대 남희(南戲) 중 대표적인 부심희(負心戲)로 조강지처를 배신한 서생에 관한 희곡(戲曲)이다.¹⁹⁾

19) 왕괴는 남자 주인공으로 이름은 俊民, 字는 康侯로 萊州 掖縣 사람이다. 왕괴는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하자 산둥 내주로 옮겨 妓房을 전전하다 기녀 桂英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일 년이 지나 다시 과거를 치를 시기가 돌아오고 계영은 왕괴를 위해 여비를 마련해준다. 왕괴의 상경을 앞두고 들은 海神廟를 찾아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지만 과거에 급제한 왕괴는 계영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최씨 여인과 혼인을 한다. 왕괴가 급제 후 徐州 僉判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계영은 사람을 보내 왕괴를 만나고자

중국의 신묘(神廟)에서 공연이 행해진 역사는 상고(上古)시대 가무악신(歌舞樂神) 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당히 유구하다. 당송(唐宋) 이후에는 민간신앙이 보편화되며 지방 신사(神祀)의 수가 급증했고, 민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묘(神廟)를 세우고 향불을 피웠다. 신묘에서 지내는 제사는 신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는 만큼 제사 방식은 노래와 음악, 공연 위주로 이루어졌다. 실제 한당(漢唐)의 제사는 음악과 춤, 백희 잡기를 위주로 하였으며, 송대 이후에는 희곡의 성장 및 발전과 함께 신묘의 제사도 희곡과 결합하여 이루어졌다.²⁰⁾

내주는 바로 왕괴 고사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곳으로, 1386년 정몽주가 이곳을 지나며 해신묘에 들렀을 때에도 관련 연희가 묘회(廟會)에서 활발하게 연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個人 차원의 非公式 演戲

(1) 음악 감상 및 가창(歌唱)

사신들은 사행단 차원의 공식적인 연회에서 접한 연희 이외에도 사적(私的) 일정 중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국의 정취와 풍속을 경험하였다. 여기에는 음악 감상, 새사(賽祀) 행사, 기녀의 가무 구경 등이 포함되며, 어떤 경우는 흥취를 못 이겨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무에 직접 개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정몽주의 《부남시》 중 〈제성현에서 통소 소리를 듣다(諸城縣聞簫)〉에서는 밤에 침상에서 우연히 듣게 된 통소 소리에 시를 쓰게 된 상황을 적고 있다.

하는 뜻을 전하나 왕괴는 서신을 땅에 던져버리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된 계영은 그 자리에서 칼을 빼 자결을 한다. 후에 南都의 과거시험장에 갔을 때 밤이 되자 한 여인이 걸어오는 것을 본 왕괴는 그녀가 계영임을 알아본다. 계영은 분노하여 왕괴를 원망하고, 겁을 먹은 왕괴는 잘못을 빌지만 계영은 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며칠 후 왕괴는 돌연사하고 만다.

20) 廖奔 著, 《中國古代劇場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111쪽.

〈제성현에서 통소 소리를 듣다(諸城縣聞簫)〉

| | |
|---------|---------------------------|
| 黃梅雨歇嫩涼生 | 황매우 그치자 선들선들한 기운 생겨나고 |
| 綠樹陰濃暑氣清 | 푸른 나무엔 그늘 짙어 더운 기운 맑아지네. |
| 欹枕暫眠風簫上 | 베개에 기대어 대자리 위에서 잠시 눈 붙이는데 |
| 隔牆時聽鳳簫聲 | 담장 너머로 이따금씩 통소 소리 들리네. |

〈화각 소리를 들으며(聞角)〉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매화농(梅花弄)〉 피리 연주를 들으며 느낀 절절한 소회를 첨언하였다.

〈화각소리를 들으며(聞角)〉

| | |
|---------|---------------------|
| 畫角吹殘入渺茫 | 화각소리의 여운 아득히 들려오니 |
| 高空過雁亦回翔 | 하늘 높이 지나는 기러기도 맴도네. |
| 一聲半夜梅花弄 | 깊은 밤 매화삼농 소리 |
| 斷盡遼東壯士腸 | 요동 장사의 애를 끊어 놓는구나. |

매화농은 매화삼농(梅花三弄)으로 매화인(梅花引), 왕비인(王妃引)이라고도 불리는 고곡(古曲)의 명칭이다. 명(明) 주권(朱權)의 《신기비보(神奇秘譜)》에 의하면 이 곡은 동진(東晉)의 환이(桓伊)가 피리곡으로 연주했던 것을 후대 사람들이 금곡(琴曲)으로 개량했으며, 매서운 흑한에도 굴하지 않는 매화의 모습을 3번에 걸쳐 묘사했다고 하여 이 같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매화농〉은 송대 진관(秦觀)의 시 〈도원에서 고인을 그리워하다(桃源憶故人)〉,²¹⁾ 금대(金代) 동해원(董解元)의 《서상기제궁조(西廂記諸宮調)》²²⁾ 등 중국의 문학 작품 안에서 오랜 세월 회자된 만큼 당시 고려의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하고 친숙한 음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1) “창밖에 달빛은 환하고 서리 무겁게 쌓이니, 매화삼농을 끝까지 듣노라(窗外月華霜重, 聽徹梅花弄).”

22) “서풍 보내고 수루에 찬기 쌓이니, 처음 매화농을 품평하네(西風送, 成樓寒重, 初品梅花弄).”

정몽주의 사행시 중에는 악기를 제재로 한 영물시도 보인다. 태평소의 재질과 외관 및 소리에 관한 정몽주의 언급은 그가 악기와 음악에 상당한 관심과 배경지식을 함양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태평소(太平簫)〉

| | |
|-------|-------------------------|
| 鳳管裝金口 | 봉황관에 금 주둥이를 장식하니 |
| 清商自此生 | 맑은 상음이 여기에서 생겨나네. |
| 一聲高撼月 | 한 소리가 드높아 달을 뒤흔들고 |
| 六孔巧鑽星 | 여섯 구멍이 교묘히 별처럼 뚫렸네. |
| 作止嚴軍令 | 소리를 냈다 멈췄다 군령을 지엄케 하고 |
| 低昂動客情 | 낮췄다 높였다 나그네 마음을 동하게 하네. |
| 想看征北日 | 생각해보니 북쪽 땅 정벌하던 날 |
| 吹徹虜王庭 | 오랑캐 왕의 뜰 안까지 울렸으리라. |

권근의 경우는 북경에서 남경을 거치는 모든 사행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가는 길 형산점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취하여 직접 가창(歌唱)을 하기도 한다.

〈형산점을 지나며(過荊山店)〉

| | |
|---------|-----------------------------|
| 江上峰巒點點青 | 강 위에 이어진 봉우리 점점이 푸르고 |
| 紅樓碧樹望如屏 | 붉은 누각 푸른 나무 바라보니 병풍 같네. |
| 舟中獨唱漁家傲 | 배 안에서 나 홀로 <어가오> 부르니 |
| 鷗鷺雙飛下晚汀 | 갈매기와 백로가 함께 저녁 물 표면에 내려오누나. |

정몽주가 <매화농>을 알아들었던 것처럼 권근 역시 <어가오>를 읊조렸다는 것은 당시 고려 지식인들이 중국의 사곡(詞曲)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연주나 가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애호하였음을 방증한다.

(2) 새회(賽會) 및 절일(節日) 풍속

사신들은 노정 중 마을의 새신(賽神) 및 절일(節日) 기념행사를 관람하며 중국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공유현에 묵다(宿贛榆縣)〉

| | |
|---------|----------------------------|
| 縣官無事草生庭 | 관아에는 일이 없어 풀만 뜰에 자라나고 |
| 城上不聞刁斗聲 | 성안에는 조두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
| 父老賽神來討卦 | 마을 어른들 새사 지내며 점괘를 치고 |
| 兒童下學競呼名 | 아이들은 공부 끝나자 다투어 이름 부르네. |
| 柳塘日暖紅鱗戲 | 버들 못엔 따뜻한 해 비치니 오색 물고기 뛰놀고 |
| 麥隴風過翠浪生 | 보리밭에는 바람 지나니 푸른 파도가 일렁이네. |
| 惆悵三韓遠遊客 | 서글프다 멀리 떠난 삼한의 나그네 |
| 問津還愧耦而耕 | 나루터 묻자니 도리어 농부에게 부끄럽네. |

정몽주의 《부남시》에 보이는 기록으로, 남경으로 향하는 여정 중 강소성(江蘇省) 공유현에 묵게 되었을 때 가을걷이가 끝난 후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새회(賽會)를 보게 된 상황이다. 〈상주에서 제야에 여러 서장관에게 주다(常州除夜, 呈諸書狀官)〉 중에서도 “집집마다 등불 아래에 담소 소리 떠들썩하고, 곳곳마다 폭죽 소리에 귀신들이 놀라겠구나. 오늘 밤이 어떤 밤인가 바로 제야의 밤이니, 배 안에서 묵는 나그네 마음 가누기 어렵네(家家明燈笑語喧, 處處爆竹神鬼驚. 今夕何夕是除夜, 舟中宿客難爲情).”라는 구절을 통해 구나(驅灘)를 위한 폭죽놀이가 한창인 제야의 놀이 상황을 묘사하였다.

(3) 양주(楊州) 뱃놀이 풍경

사적 여정에서 포착되는 마지막 연회 감상 방식은 바로 기녀와의 간접 조우이다. 이는 고려조 연행록 중에서도 양주(楊州)를 지나는 여정이 포함 된 경우에만 발견되는 기록으로, 기록자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솔직한 소회

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명으로의 사행 노정은 고려에서 북평(北平)까지는 요동땅을 경유하는 육로를, 북평 통주(通州)에서부터 명의 도읍인 남경까지는 운하(運河)를 통한 수로를 이용하였다. 때문에 운하를 타고 남경으로 내려갔던 고려 사신들은 운하와 장강(長江)의 교차 지점인 양주(楊洲)를 반드시 지나게 되었다.

양주(楊洲)는 양주(揚州)라고도 하며 교통의 요지이자 대규모 소금 산지들이 인접해있던 염업(鹽業)의 중심지로, 상업적으로 대단히 번창한 지역이었다.²³⁾ 물자가 풍부하고 경제가 발전하여 양주는 호숫가를 가득 메운 기루(妓樓)와 밤 문화로도 명성이 높았다. 양주는 청대(清代) 말엽까지 왕조의 흥망성쇠에 따라 번영과 쇠퇴를 거듭하였고, 정몽주 역시 이곳을 지나며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양주의 매력에 빠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주(楊洲)〉²⁴⁾

| | |
|--------|-------------------|
| 經過楚地山川 | 초나라 옛 산천을 지나가면서 |
| 像想隋家宮闕 | 수나라의 궁궐을 상상해보네. |
| 往時興廢誰嗟 | 지난날의 흥망을 누가 탄식할까 |
| 此日繁華可悅 | 오늘날 변화함은 기뻐할 만하네. |
| 仙花香杳難尋 | 선화는 아득하여 찾기 어렵지만 |
| 官柳依依堪折 | 관류는 휘늘어져 꺾을 만하네. |
| 晚來偶泊蘭舟 | 저물녘 우연히 목란배를 대었는데 |
| 二十四橋明月 | 이십사교에 휘영청 달 밝구나. |

당시 문인들에게 양주는 미인과 풍류의 도시였으며,²⁵⁾ 특히 ‘이십사교

23) 안정훈, <<揚州畫舫錄>> 小考, 《중국소설논총》 제22집. 2005, 189쪽.

24) 이 시의 제목은 《圃隱先生文集》 권1에는 〈楊洲〉라고 되어 있으나, 삼국시대 부터 조선 中宗 초까지의 문인들의 작품들을 뽑아 편집한 《東文選》 권22에는 〈過楊洲〉라고 되어 있다.

25) 이승인의 《봉시록》에도 〈양주의 배 안에서 괜히 흥이 나서(楊州舟中漫興)〉라는 시가 실려 있다. “가는 길마다 끝없이 읊조리면서, 달빛 타고 양주를 지

(二十四橋)’²⁶⁾는 양주 풍류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또한 양주는 당대(唐代) 시인 두목(杜牧)과의 인연으로 더욱 유명했는데, 풍류를 추구하는 문인들에게 ‘양주몽(揚州夢)’²⁷⁾은 낭만과 환상의 이상향이었지만 반대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타산지석(他山之石)이기도 했다.²⁸⁾

〈함께 가는 젊은이에게 장난삼아 주다(戲贈偕行年少)〉

| | |
|---------|-------------------------|
| 曾聞杜牧最風流 | 듣자하니 두목은 풍류가 최고인지라 |
| 每向揚州好暗遊 | 매양 양주에서 몰래 놀기 좋아했다지. |
| 今日周南王化近 | 오늘날 주남 땅은 왕의 교화 가까우니 |
| 行人且莫錯回頭 | 나그네는 행여나 고개 잘못 돌리지 마시길. |

나노라(行行吟未已, 乘月過揚州).”라는 구절을 통해 볼 때 양주는 그 이미지만으로도 이미 문인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26) 이십사교에 대해서는 北宋 沈括의 《夢溪筆談·補筆談》에 의거하여 양주의 구성(舊城)에 있던 24개의 다리를 뜻한다는 설과 李斗의 《揚州畫舫錄》 권5의 내용에 근거하여 희춘대(熙春臺) 뒤에 있던 홍약교(紅藥橋)의 다른 이름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張連瑩의 〈二十四橋金勝昔〉(《鐘山風雨》, 2005年 第1期)와 朱千華의 〈尋找二十四橋〉(《中國圖書評論》, 2005年 1月)를 참고 가능하다.

27) 〈회포를 풀다(遣懷)〉

| | |
|---------|------------------------------------|
| 落魄江南載酒行 | 실의하여 강남에서 술 싣고 다니는대 |
| 楚腰腸斷掌中輕 | 창자 끊길 듯 가는 허리의 초나라 미인은 손에 들어도 가볍네. |
| 十年一覺揚州夢 | 십년 만에 문득 양주의 꿈에서 깨어나 보니 |
| 贏得青樓薄幸名 | 얻은 것은 기생집의 알팍한 명성 뿐. |

벼슬길에서 좌절을 겪고 양주에서 말단 幕僚 생활을 하던 때 두목은 기생집을 전전하며 술과 여색에 빠져 살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두목의 풍류를 ‘揚州夢’이라고 불렀다. 두목의 풍류 생활은 于鄴의 〈揚州夢記〉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고, 이를 토대로 후대의 喬吉, 嵇永仁 등의 문인들이 두목과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희곡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

28) 정몽주에게는 한국 성리학의 始祖라는 칭호가 상투적으로 따라 붙었다. (임종욱, 〈圃隱 鄭夢周의 詩文學에 나타난 中國體驗과 性理學의 世界觀〉, 《한국문학연구》 제12집, 1989, 13쪽.)

이렇게 농담조로 젊은이를 계도하는 정몽주이지만 자신도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결국 고개를 돌려 돌아보고 만다.

〈배 안의 미인(舟中美人)〉

| | |
|---------|-----------------------|
| 美人輕漾木蘭舟 | 미인이 목란배 위에서 가볍게 흔들흔들 |
| 背插花枝照碧流 | 뒤에 꽂은 꽃가지 푸른 물결에 비치네. |
| 北楫南檣多少客 | 남북으로 오가는 배, 수많은 나그네들 |
| 一時腸斷忽回頭 | 일시에 애 끊겨 홀연 돌아보네. |

배에 타고 있던 ‘미인’은 꽃가지를 뒤에 꽂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輕漾’이라는 시어를 통해볼 때, 이는 단순히 배가 출렁이는 흔들거림이 아니라 기녀가 배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상황까지 추측할 수 있다. 노래나 악기 등 다른 연희 양상은 묘사되지 않아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정몽주의 눈에 띈 배에는 무희가 동승 중이었고, 기녀가 춤을 연행하는 자태는 배를 타고 지나가던 수많은 남성들의 눈과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을 정도로 아름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⁹⁾

29) 19세기 후반 작가 미상의 연행록 《燕轅日錄》에는 당시 西道에서 불리던 雜歌, 民謠, 時調, 歌曲 등의 노래, 劍舞와 〈項莊舞〉 등의 춤, 馳馬戲 잡기와 음악 연주 등 기녀들의 다양한 연희 연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사행단은 외교 문서 검토를 위하여 국경 지역에 머물며 기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머무는 동안 자주 妓樂을 즐겼다. 또한 수준 높은 歌舞樂을 연행하는 기녀들을 전문적인 공연예술인으로 인정하며 향후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김남기, 《〈燕轅日錄〉에 나타난 기녀의 생활과 애환》, 《돈암어문학》 제20집, 2007. / 조용희, 〈조선후기 연행록에 형상화된 기녀의 모습 - 연행사가 국내 노정에서 보인 관심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제34호, 2017.)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사행단은 노정 중 기녀들과의 접촉이 가능했으며, 변방 지역에서는 더욱 자유롭게 기녀들의 연희 공연을 접하고 교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Ⅲ. 觀戲 태도 및 인식 정도

이창숙³⁰⁾과 김아리³¹⁾는 명대까지의 연행록 안에 기록된 중국의 공연문화는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간략한 진술에 그쳤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고려 지식인들의 시선에서도 백희 잡기를 비롯한 사행 당시 접한 중국의 연희들이 하찮고 속되게 비취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명대까지 중국의 공연예술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터부시하던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후 청대의 연행 기록에서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태세를 전환하여 보고 들은 다량의 정보를 세세하고 방대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희의 교화적 기능까지 인정하는 모습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³²⁾ 성리학적 가치관이 최고조에 달한 조선시대 사행 기록 중 중국에서 접한 연희 관련 기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기술하는 태도와 관점 역시 변화하는 현상을 볼 때, 고려시대 연행록 안에 보이는 연희 관련 기록의 특징을 단순히 사상적 이유로만 귀속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즉 고려시대 사행 기사 중 중국의 연희 관련 기록이 소략하고 단편적인 것은 중국에 대한 고려 지식인들의 관심도(關心度),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보다 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보인다.

몽골과의 관계가 정립되던 시기부터 고려는 국왕의 친조(親朝)를 요구하는 원에 우회적인 방법인 종실(宗室) 사행을 통하여 양국의 강화(講和)를 유지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으며,³³⁾ 조선 건국 후 친명사대(親明事大)

30) 이창숙, 〈燕行錄의 中國戲曲史料의 價値 探索〉, 《中國文學》 제33집, 2000, 255쪽.

31)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03쪽.

32) 이창숙, 〈燕行錄에 실린 중국 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제20권, 2010, 169쪽.

33) 이명미, 〈元宗代 고려 측 對 몽골 정례적·의례적 사행 양상과 그 배경 -1273년(元宗 14) 고려 측 賀冊封 使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9호,

외교 노선이 확립되기 전까지 북원(北元)과 명에 대하여 끝까지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³⁴⁾ 1364년 주원장(朱元璋)이 몽골을 대도(大都)에서 몰아내고 남경에 명을 건립, 한족(漢族)에 의한 지배 체제가 재개되며 고려는 정부 내의 친원 세력을 숙청, 축출하고 원의 연호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 개경(開京)의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철폐하고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또한 명이 고려에 사절을 보내어 교류를 희망하자 공민왕(恭愍王) 18년(1369) 고려에서도 명에 사절을 보내 응답함으로써 여명(麗明) 간 정식 국교를 수립하였다.³⁵⁾

즉 불안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고려는 중국 중심의 화이론 보다는 천하동문(天下同文)이라는 세계관 아래 동시대 각 나라들의 입장과 역할에 더 주목하였다. 고려 지식인들 역시 문명국 고려에서 유학과 한문을 수양한 교양인임을 자부하며 ‘동인의식(東人意識)’, ‘문명의식’과 같은 강한 독자적 왕통의식 아래 대등한 위치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³⁶⁾ 이들은 사행이라는 정례적이고 의례적인 구조 속에서도 주체성을 견지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중국의 문물, 문화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용 자세는 당시의 연행록 중 연회 관련 기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 연행록 4종의 기록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듯, 고려 지식인들은 중국 사행에서 접한 연회의 내용이나 명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음은 물론 관회, 유희 이후의 감상에도 있어서도 별다른 논평을 남기지 않았다. 연회 설

2015, 178-183쪽.

34) 당시 고려는 명과 통교하면서 동시에 北元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채 나름의 견제책을 구축하였다. 때문에 명은 고려의 사대를 거절하고, 고려의 사신을 유배 보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고려를 견제하였다. 고려, 北元, 명은 위화도 회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종속되지 않은 채 세력 균형을 도모하였다. (김한규, 《한중관계사II》, 서울: 아르케, 1999, 565-566쪽.)

35) 앞의 책, 563-570쪽.

36) 안장리, <여말선초 사대부의 봉사시에 나타난 세계관 비교>, 《포은학연구》 3권, 2009, 49-52쪽.

연 상황을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이거나 지극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전달 수준의 몇 글자로 연희에 대한 기술을 그친다. 앞서 해신묘에서 ‘왕피고사’를 연출한 공연을 보고난 후 ‘황당(荒唐: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이라는 한 단어로 일축한 정몽주의 감상평은 당시 중국 공연예술에 대한 고려 지식인들의 인식 정도를 함축적으로 대변한다 할 수 있다. 중국 희곡에 대한 생소함과 무지, 이해 부족도 이유였겠지만 고려의 지식인들은 당시 기본적으로 연희를 비롯한 중국의 공연예술 자체에 크게 관심을 갖거나 동요하지 않았으며, 타자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고는 원~명초 중국으로 사행을 다녀온 고려 사행단이 공식, 비공식 일정에서 접했던 연희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하고, 당시 중국 공연예술에 대한 고려 지식인의 인식과 태도를 연희를 바라보고 향유하는 ‘유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연행록 중의 연희 관련 기록들은 파편적이고 단순하기는 하나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전달적인 성격을 띠는 기술들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고려시대 연행록 중 중국의 공연예술에 관한 기록이 단편적이고 소략한 것은 고려시대 지식인들의 사고 안에 자리한 당시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고려의 지식인들이 현실적이고 타자적인 입장에서 연희를 비롯한 중국의 문화를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망한 데에서 기인한 태도 때문이라고 보인다.

본고는 초보적이거나 고려조의 사행 기록을 중심으로 궁정과 민간에서 연행된 중국 연희 관련 정보들을 처음으로 명문화, 가시화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18~19세기 조선시대 연행록 속

중국 연희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조선시대 연행록까지를 아우르는 통시적 비교 연구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 김한규, 《한중관계사Ⅱ》, 서울: 아르케, 1999.
- 맹원로(孟元老) 지음, 김민호 옮김,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서울: 소명출판, 2010.
- 안상복, 《중국의 전통 잡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李秀雄, 《中國娼妓文化史》, 서울: 대한교과주식회사, 1987.
- 임기중 編, 《燕行錄全集 1》,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사, 2001.
- 임기중, 《연행록 연구》, 서울: 일지사, 2002.
- 廖奔 著, 《中國古代劇場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 孟元老 撰, 鄧之誠 注, 《東京夢華錄注》, 北京: 中華書局, 1982.
- 김남기, <<燕輶日錄>에 나타난 기녀의 생활과 애환>, 《돈암어문학》 제20집, 2007.
- 김미경, <19세기 연행록에 나타난 민속연희 -<蔚山紀程>을 中心으로>, 《실천민속학연구》 제6호, 2004.
- 김순자, <원·명 교체와 여말선초의 화이론>, 《한국중세사연구》 제10호, 2001.
- 김철웅, <이승인의 明 使行과 「奉使錄」>, 《한국인물사연구》 제20호, 2013.
- 서병상, <女樂의 發達과 그 生活狀>, 《어문학연구》 제4집, 1991.
- 안상복, <燕行錄의 雜技 관련 記事 연구>, 《중국문학》 제53집, 2007.
- 안장리, <여말선초 사대부의 봉사시에 나타난 세계관 비교>, 《포은학연구》 3권, 2009.
- 안정훈, <<揚州畫舫錄> 小考>, 《중국소설논총》 제22집, 2005.

- 엄경흠, 〈鄭夢周와 權近의 使行詩에 表現된 國際關係〉,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 2004.
- 엄경흠, 〈정몽주의 명 사행에 나타난 외교적 소통 방식〉, 《포은학연구》 1권, 2007.
- 이명미, 〈元宗代 고려 측 對 몽골 정례적·의례적 사행 양상과 그 배경 - 1273년(元宗 14) 고려 측 賀冊封 使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9호, 2015.
- 이창숙, 〈燕行錄의 中國戲曲史料의 價値 探索〉, 《中國文學》 제33집, 2000.
- 이창숙, 〈燕行錄에 실린 중국 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제20권, 2010.
- 임기증, 〈燕行錄의 幻戲記〉, 《한국민속학》 제31집, 1999.
- 임기증, 〈연행록의 연희기와 관희시〉, 《문학한글》 제13집, 1999.
- 임종욱, 〈圃隱 鄭夢周의 詩文學에 나타난 中國體驗과 性理學의 世界觀〉, 《한국문학연구》 제12집, 1989.
- 조윤희, 〈조선후기 연행록에 형상화된 기녀의 모습 -연행사가 국내 노정에서 보인 관심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4호, 2017.
- 하정승, 〈양촌 권근 시를 통해 본 고려후기 중국 사행(使行)의 일 단면: 「봉사록(奉使錄)」의 시를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25권, 2020.
- 홍상훈, 〈양주揚州 - 전통 중국인들의 유토피아〉, 《流域》 제2호, 2006.
- 張連瑩, 〈二十四橋金勝昔〉, 《鐘山風雨》, 2005年 第1期.
- 朱千華, 〈尋找二十四橋〉, 《中國圖書評論》, 2005年 1月.
-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s://www.krpia.co.kr/>

<Abstract>

This study traces and organizes various types of Chinese performing arts that Goryeo Dynasty's diplomatic envoys saw and heard on official and unofficial banquets during their envoys. Lee Seung-Hyu's "Binwangrok", Jeong Mong-Ju's "Bunamsi", Lee Sung-In's "Bongsarok", Gwon Geun's "Bongsarok" are the "Yeonhaengrok" that record performance-related contents at that time.

The performances include official events such as court dramatic entertainments, acrobatics, and local drama and performances to musical instruments and music appreciation and small-scale singing and dancing performances at private meetings.

Although the records related to dramatic entertainments in the "Yeonhaengrok" are brief and fragmentary, they are fact based and informational, and are confirmed neither negative nor critical.

This is judged to be an attitude that stems from a realistic and objective view of Chinese performing arts, including entertainments and performances. As a result, it can be interpreted as an indicator that reflects the overall thoughts and attitudes of Goryeo intellectuals toward China and Chinese culture.

Key Words : 고려(Goryeo Dynasty), 연행록(Yeonhaengrok), 이승휴(Lee Seung-Hyu), 정몽주(Jeong Mong-Ju), 이숭인(Lee Sung-In), 권근(Gwon Geun), 빈왕록(Binwangrok), 부남시(Bunamsi), 봉사록(Bongsarok), 연희(Performing arts)

